

# 전북쌀, 한국 명품쌀로 최다 추천

### 전국 추천 31개소 중 전북 7개소... 정부, 3년 연속 선정된 브랜드 쌀 대폭 지원 예정

전북도내 브랜드 쌀이 전국 최다 명품쌀로 추천됨에 따라 전북도가 대한민국 대표쌀 생산지로서의 위상확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5일 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6년 대한민국 명품쌀 선정평가'에서 전북 지역의 7개 브랜드의 쌀이 추천돼 전국 최다 추천을 기록했다.

이번에 실시된 '대한민국 명품쌀 선정평가'는 기존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가 개편된 것으로 전국 1,700여 개의 쌀 브랜드가 각축전을 벌여 총 31개소가 추천됐다.

추천대상은 매출액 20억원 이상 브

랜드, 농협·민간RPC가 추천하는 브랜드, 대형유통업체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등이다.

그 결과 전북은 7개소가 선정되고 그 뒤를 경기(5), 강원(3), 충북(3) 등이 뒤따른다.

이번에 추천된 전북 쌀 브랜드는 군산 제회RPC의 철새도래지쌀, 익산 명천RPC의 탐마루 골드 라이스, 군산 회현농협RPC의 옥도진미, 김제 공덕농협RPC의 상상예찬골드, 김제 새만금 농산RPC의 새만금 쌀, 부안 동진협동RPC의 갯마을 천년의 솜씨, 김제 이택RPC의 방아짚는날 골드 등이다.

도는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3월부

터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시·군 10개 브랜드 쌀을 자체평가해왔다.

평가 항목 및 평가 기관은 ▲품종혼입율 및 단백질함량 평가(전북 농업기술원) ▲품질평가 및 잔류농약, 유해중금속분석(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전문가 식미평가(한국식품연구원) ▲소비자 식미평가(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도지회) 등이다.

그 결과 군산 제회RPC의 철새도래지쌀과 익산 명천RPC의 탐마루 골드 라이스는 최우수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 정부는 전국 각지에서 추천된 31개 브랜드쌀에 대해 품종순도, 품위, 전문가·소비자 집단을 통한

식미, 표기사항, 매출액 등의 평가를 거쳐 12월중 10개소를 대한민국 명품쌀로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3회 연속으로 선정된 브랜드 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명품쌀'로 등록하고 관리해 대폭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도 강승구 농축산식품국장은 "대형 유통업체 및 관련단체에서 전북쌀의 우수성을 인지해 대한민국 명품쌀 평가에 많은 추천이 이뤄졌다"며 "전북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쉬워져

### 가입자 자료 행정부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오는 6일부터 주택연금가입자 정보가 행정자치부의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업무가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행정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연금가입자 자료가 7월 재산세부터 행정부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고 지자체에 일괄 제공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2010년부터 재산세를 25% 깎아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지자체는 감면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주택금

용공사에 연금주택 가입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지자체별로 제출해 업무절차가 불편하고 자료누락 우려가 있었다.

계다가 올해는 '내집연금 3중세제' 출시에 따라 지난해 동기대비 1~6월까지 주택연금 신규가입자가 73%나 증가해 체계적인 감면자료 관리를 위한 관련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행정부는 설명했다.

김장주 행정부 지방세정책관은 "이번 과세자료 전산연계로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정확하고 적시 감면 혜택을 제공해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 공공기관 정보 '민간클라우드'로 이용... 1등급은 제외

앞으로 공공기관은 1등급을 제외한 모든 정보자원을 민간 클라우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5일 '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Cloud)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6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DI)에서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민간 클라우드업체가 상용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Cloud Computing Service)'를 공공기관이 이용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지침을 마련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지난 4월에 제시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포함된 기관등급 평가내용을 삭제했다.

특히 정보자원 등급이 3등급인 경우만 이용할 수 있던 것을 1등급을 제외한 모든 정보자원이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정영수 기자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5일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7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에 송하진 도지사와 송현만 민주평통 전북지역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전북 벼 재해보험 가입률 전국 최고 수준

### 전체의 53%인 63,785ha로 전년비 66% 증가... 김제-정읍-고창-익산-부안 순

전북도내 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면서 도의 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도내 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전체의 53%인 63,785ha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고 이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것이다.

그 뒤를 전남(50%), 충남(35%), 경남(23%) 등이 뒤따른다.

시·군별로는 김제가 15,020ha로 도

내에서는 가장 많이 가입했고 그 다음을 정읍시, 고창군, 익산시, 부안군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재해보험 가입률이 좋은 성과를 거둔 이유는 도 주관으로 시군별 전략회의, 대농업인 맞춤형 밀착 홍보 등 체계적인 대응과 시군, 농협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주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앞서 도는 농업인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벼 재해보험이 많은 정읍, 김제 등 7개 시군을 순회하며

벼 재해보험 상품 설명 및 교육을 하고 TV 지방방송, 도청 내 광고·전광판 게시, 읍면별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보험 상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농업인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했다.

도 관계자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른 면을 여름철에는 다른 해에 비해 집중 호우와 태풍이 잦은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원예시설 등의 농가는 하루빨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수 기자

## '애니웨이 코리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MOU

중국 기업들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중 합작 식품기업인 애니웨이 코리아가 지난 5일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에서 농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애니웨이 코리아는 중국 식품기업 애니웨이와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설립한 한중 합작 법인회사로, 한국의 유기농 농산품 및 가공제품을 '애니웨이' 브랜드로 중국에 역수출할 계획이다.

이를 결정한 중국 애니웨이는 유기농 전문 식품기업으로 2008년 설립되

어 90여 가지의 농산품을 직접 재배 및 유통하고 있다. 이번 애니웨이코리아 설립을 통해 중국 현지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는 한국의 먹거리로 중국 내 유기농 식품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며, 7월 초 외국인투자신고를 완료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계획이다.

하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MOU를 체결해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을 축하한다"며 "애니웨이 코리아가 성장하는데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정읍·고창서 도내 올해 첫 열대야

어제 밤 최저 25.7도

여름철 최대의 불청객 열대야(tropical night)의 전북지역 방문시기가 빨라졌다.

5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정읍과 고창의 밤 사이 최저기온이 25.7도를 기록하면서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발생했다.

정읍의 지난해 첫 열대야는 7월 12일이었으며, 고창은 7월 23일로 각각 발생 일수가 지난해에 비해 7일, 18일 정도 빨랐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번 열대야는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무더운 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해 발생했다고 기상지청은 설명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당분간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과 편현상으로 인해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밤에는 열대야, 낮에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린이와 노인 등 노약자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주 기자

### 여름방학스피치 특강모집

#### 스피치·응변·면접·웃음치료·시낭송

-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응변인협회 전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의를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인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 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 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출)  
③ 김양욱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 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 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응변인협회, (사)한국응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면접 아카데미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